

# 문화 체계로서의 신 유대 집단(New Jewish Group) 종교 연구

- 안드라프라테시와 뉴멕시코를 중심으로 -

강 지 언\*

1. 서론
2. 안드라프라테시와 뉴멕시코 유대 집단의 종교적 특징
  - 2.1 지역적 특수성
  - 2.2 두 집단의 종교 관례 - 모델·동기·분위기
  - 2.3 두 집단의 이야기 - 질서 개념과 사실성
3. 두 집단과 현대 유대교
4. 결론

## 1. 서론

1948년 유대인을 국민으로, 유대교를 국교로 하는 이스라엘이 건국되었다. 이스라엘은 건국 초기부터 이민을 신청한 모든 이에게 이스라엘 국적을 부여하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이주(알리야, Aliyah)를 장려하였다. 이는 국민 수를 늘려 국력을 증진하기 위함이었다. 1950년대부터는 반유대주의(Antisemitism, 반셈족주의) 정서가 세계적으로 잦아들기 시작했다. 1980년, 로마 가톨릭은 공식적으로

---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석사과정

반유대주의를 비판하며 유대인에 대한 과거 교회의 태도를 철회하였다.<sup>1)</sup>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이 유대인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였다. 주로 20세기 말부터 등장한 이들은 미국, 포르투갈, 러시아, 이탈리아, 인도, 이란, 수단, 미얀마, 티베트 등 다양한 지역에 분포한다.

최근 학계에서도 이들에 주목하고 있으나, 그 연구는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는 학계에서 이들을 일컫는 명칭이 신 유대 집단(New Jewish Group), 근 유대 집단(Near-Jewish Group), 유대화 운동 공동체(Judaizing/Judaising Movement Community) 등 다양하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sup>2)</sup> 이러한 신 유대 집단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오랜 기간 유대교 및 유대 문화와의 연결이 끊어져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잊지 않으면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민족의 종교와 문화를 지켜온 디아스포라 유대인 집단과 다른 점이다. 신 유대 집단은 과거 어느 때에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종교, 문화를 잃어버리고(혹은 감추고), 사는 지역의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왔으나 이제야 근본을 되찾게 되었다고(혹은 이제야 유대인임을 숨기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sup>3)</sup> 이처럼 신 유대 집단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집단에 비해 살아온 지역의 문화와 환경에 큰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이들 집

---

1) Lloyd P. Gartner, *History of the Jews in Modern times*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396-399.

2) 인도 유대 집단은 주로 근 유대 집단, 유대화 운동 공동체 등으로 불리며, 미국 뉴멕시코 유대 집단은 이들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에서 비롯된 명칭인 크립토 유(Crypto-Jew) 등으로 불린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와 미국 두 유대 집단을 다루므로 두 집단을 포괄할 수 있는 '신 유대 집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 이들을 가리키는 명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자 한다. Tudor Parfitt, "Tribal Jews," *Indo-Judaic Studies in the Twenty-First Century: A View from the Margin*, eds. Nathan Katz, Ranabir Chakravarti, Braj M. Sinha, and Shalva Weil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7), 190-191; Yulia Egorova and Shahid Perwez, *The Jews of Andhra Pradesh: Contesting caste and religion in South India*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5.

3) Egorova and Perwez, *The Jews of Andhra Pradesh*, 4-6.

단의 종교를 연구하는 데에 있어 문화 체계로서의 종교를 말한 클리퍼드 기어츠(Clifford Geertz, 1926-2006)의 이론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인류학자인 기어츠는 종교가 가지는 문화적인 측면에 주목하였다. 기어츠에 의하면 ‘문화’란 사람들이 삶에 대한 지식을 전하고, 삶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는 의미의 양식(a pattern of meanings)이다. 이 문화에는 다양한 문화 체계(cultural system)가 있는데 이 문화 체계에 예술, 이데올로기, 종교 등이 포함된다.<sup>4)</sup> 이와 같이 종교를 문화 체계로 본 기어츠의 종교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교란, (1) 작용하는(act) 상징의 체계로, (2) 인간에게 강력하고, 편만하며(pervasive), 오래 지속되는 분위기와 동기를 세우고, (3) 일반적인 존재의 질서 개념을 형성하며, (4) 이러한 개념에 사실성의 기운(aura)을 입혀, (5) 분위기와 동기가 독특하게 현실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다.”<sup>5)</sup> 종교는 인간에게 관념을 전하고 인간이 무언가를 느끼거나 행동하게 만든다. 또한 세상을 반영하는 동시에 세상에 대한 의미를 제공하면서 인간의 삶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진다.<sup>6)</sup> 이 같은 관점에서 기어츠는 종교와 문화, 그리고 문화 내에서의 개인과 종교는 상호관계에 있으며, 종교의 상징, 규칙, 이야기는 보다 넓은 의미 체계 안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sup>7)</sup>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지역에 대한 다층적 연구와 여기서 비롯된 지방적 지식(local knowledge)이 특히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sup>8)</sup>

4) Daniel L. Pals, *Nine Theories of Religion*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302.

5) Clifford G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Selected essays* (New York: Basic, 1973), 90.

6) Pals, *Nine Theories of Religion*, 303-304.

7) David Buchdal, “Religion and Culture: Judaism as a Cultural System,” *Take Judaism, For Example: Studies toward the Comparison of Religions*, ed. Jacob Neusner (Atlanta, Ga.: Scholars Press, 1992), 199.

8) Clifford Geertz, *Local knowledge: Further essays in interpretive anthropology* (New York: Basic, 1983), 16.

인도 남동부에 위치한 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 주(州)와 미국 남서부에 위치한 뉴멕시코(New Mexico) 주(州)에는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유대 집단이 있다. 이들의 유대교는 인도와 미국 다른 유대 집단의 유대교와 달리 안드라프라데시와 뉴멕시코라는 거주 지역의 문화와 환경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이들의 종교는 지역적인 특수성을 지니며 문화와 종교, 개인 간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적 유대 집단은 세계화(globalization)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더 큰 범주의 유대교와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안드라프라데시와 뉴멕시코 유대 집단의 역사와 문화, 환경을 검토하면서 두 집단의 유대교가 가지는 지역적인 특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두 지역적 유대교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요소인 1) 종교 관례와 2) 이야기를 기어츠의 종교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기어츠의 이론이 신 유대 집단의 종교 연구에 있어 가지는 효용성을 밝힌다. 나아가 두 유대 집단과 유대교 및 유대 사회와의 관계를 살펴며 신 유대 집단에 대한 연구가 향후 종교학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로 확장될 수 있음을 검토하고자 한다.

## 2. 안드라프라데시와 뉴멕시코 유대 집단의 종교적 특징

### 2.1 지역적 특수성

인도 남동부에 위치한 안드라프라데시 주(州) 신 유대 집단의 이름은 베네 에프라임(Bene Ephraim)<sup>9)</sup>이다. 안드라프라데시 주가 공용어로

9) 이는 ‘에브라임의 후손들/아이들(בְּנֵי עֵפְרַיִם, Sons/Children of Ephraim)’이란 뜻으로 브네이 에프라임(B'nai/Bnei Ephraim)이라고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인 율리아 에고로바(Yulia Egorova)와 이들을 후원하는 이스라엘 비영리기구 쿨라누(Kulanu)의 표기방법을 따라 베네 에프라임

텔루구 어(語)를 사용하고 있어 텔루구 유대인(Telugu Jews)이라고도 한다. 힌두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이 지역은 힌두 계급 제도인 카스트(Caste)에 따라 거주지가 나뉘기도 한다. 인도에서 바르나(varna, ‘색色’이라는 뜻)라 불리는 이 카스트 제도는 기원전 4세기 이후 세력인 아리안(Aryan)족이 토착 원주민인 드라비다(Dravid)족을 정복한 후 도입한 사회 신분제에서 시작되었다. 바르나는 크게 브라만(Brahmins, 사제), 크샤트리아(Kshatriyas, 왕, 귀족, 무사), 바이샤(Vaishyas, 상인, 평민), 수드라(Sudras, 하층민)의 4 계층으로 나뉘며, 이 바르나에 들지 못하는 불가촉천민이 있다. 각 계층은 다시 하위 신분제인 자띠(Jati, ‘출생出生’이라는 뜻)로 나뉘는데, 이 자띠는 세습 직업과 집단 내혼의 단위가 된다.<sup>10)</sup>

불가촉천민은 마디가(Madiga), 말라(Mala) 등의 자띠로 나뉜다. 그중 마디가는 불가촉천민 안에서도 맨 아래에 속하는, 인도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차별받는 계층이다. 이들은 지정 계급(SCs: Scheduled Class, 1935년 이후 불가촉천민을 가리키는 인도의 법적 용어)의 47%를 차지한다. 안드라프라데시의 마디가들은 대부분 벽돌, 신발 제조와 같은 수공업에 종사하거나 토지 주인의 밭을 빌어 경작을 한다. 또한 이들 중 많은 수가 그리스도교 선교의 영향으로 그리스도교인이다.

1980년대 말, 그리스도교 마디가 집단에서 자신이 유대인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형제인 슈므엘 야코비(Shmuel Yacobi)와 사독 야코비(Sadok Yacobi)였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그들의 유대 뿌리에 대해 들었다고 하였다. 이후 이들은 자신의 가문 뿐 아니라 모든 마디가 계층이 실은 기원전 8세기 북 이스라엘에서 사라진 유대 부족들(Lost tribes) 중 요셉의 차남이자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Ephraim)의 후손이라고 주장하였다. 두 형제는 1990년, 베네 에프라임(Bene Ephraim)이라는 회당을 세우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종교를 공표하였다.<sup>11)</sup>

---

(Bene Ephraim)이라 하였다.

10) 박정석, 『카스트를 넘어서』 (서울: 민속원, 2007), 16-17.

그러나 인도 내 다른 유대 집단과 달리 이들은 아직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종교 환경에 익숙한 대도시 힌두 계급과 달리 안드라프라데시의 힌두 계급은 유대교를 독자적인 종교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들은 베네 에프라임을 그리스도교 분과나 천민 계급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정치적 전략의 한 형태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리스도교 신자가 많은 이 지역 마디가 계층 역시 이들의 유대교를 종교로 보지 않으며 반유대적인 정서를 드러내기도 한다.<sup>12)</sup> 이처럼 베네 에프라임의 상황은 안드라프라데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인도 내 다른 유대 집단과의 비교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제 1, 2차 세계대전 때 인도로 망명한 유대인들과 달리 오랜 기간 인도에서 살아온 유대 집단으로는 코친 유대인(Jews of Cochin), 바그다디 유대인(Baghdadi Jews), 베네 이스라엘(Bene Israel) 등이 있다. 코친 유대인은 2차 성전 파괴 이후 인도 서해안 코친(Cochin)에 정착했다고 알려진 유대인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들은 중세부터 인도의 왕(maharajah)에게 외국인으로서 우대와 특혜를 받았다. 이들은 비교적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며 ‘순수한’ 유대인으로 여겨진다. 바그다디 유대인은 인도 독립 이후에 무슬림의 종교 탄압을 피해 파키스탄에서 건너온 유대인들이다. 이들은 유럽인 혹은 ‘외국’ 공동체로 받아들여진다. 베네 이스라엘은 기원전 2세기 박해를 피해 서인도 해변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유대인 집단이다. 이들은 18세기에 군대에 자원해 신분 상승을 이루었으며 이후 뭄바이(Mumbai) 주변에 정착하였다. 이들은 불가촉천민보다는 상위에 있는 계급으로 받아들여진다.<sup>13)</sup> 이와 달리 베네 에프라임은 지역 내에서 독립적인 종교 집단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힌

11) Yulia Egorova and Shahid Perwez, “Old Memories, New Histories: (Re)discovering the Past of Jewish Dalits,” *History and Anthropology* 23, 2012, 2-3.

12) Egorova and Perwez, *The Jews of Andhra Pradesh*, 57-61.

13) Yulia Egorova, *Jews and India: Perceptions and image* (New York: Routledge, 2006), 105-115.

두 전통의 불가촉천민이라는 사회적 신분 역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집단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경제적 빈곤과 높은 문맹률로 이들의 종교 전통은 교리보다는 종교 관례와 신화 중심적이며, 이 관례와 이야기는 힌두 전통과 혼합된 성격을 갖는다.

미국 뉴멕시코 주(州) 신 유대인 집단은 뉴멕시코 크립토 유(Crypto-Jews)라 한다. 이들의 역사는 15세기 중세 스페인에서 시작된다. 1469년, 카스티야(Castile)의 이사벨라 여왕(Queen Isabella)와 아라곤(Aragon)의 페르난도 왕(King Ferdinand)의 결혼으로 스페인 왕국이 세워졌다. 이후 스페인 왕국은 이슬람 국가를 차례로 정복하며 이베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강력한 가톨릭 국가를 세웠다. 1480년, 스페인 왕국은 이단(heresy) 행위를 척결하고자 종교재판소를 설립하였다. 이때 유대교 역시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1492년, 모든 유대인이 개종 혹은 추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왕령(王令)에 따라 이베리아 반도 내 수많은 유대인이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다. 이렇게 개종한 유대인은 크리스티아노스 누에보스(Christianos Nuevos, 신 그리스도교인), 콘베르소(Conversos, 개종자), 혹은 경멸이 담긴 의미로 마라노(Marranos, 돼지)라 불렸다. 그런데 개종에 강제적인 성격이 있었던 만큼 길으로는 그리스도교인으로 살 되, 몰래 유대교의 율법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다. 이처럼 유대 신앙을 감추며 살아온 유대인을 크립토 유(Crypto-Jew)라 한다.<sup>14)</sup>

이 중 일부 유대인은 박해가 덜 한 스페인 식민지로 이주하기도 하였으나 16세기 중반부터는 식민지에도 종교재판소가 설립되었다. 그 중 한 곳이 바로 뉴멕시코였다. 뉴멕시코의 많은 유대인이 ‘모세의 율법(Law of Moses)’을 따른다는 이유로 재산을 빼앗기고 추방되거나 사형을 당하였다. 1642년, 뉴멕시코 종교재판소가 크립토 유를 대상으로 대규모 종교운동을 벌이면서 탄압은 더욱 심해졌다. 친구나 하인의 밀고

14) 현재 이들을 부르는 명칭 또한 Conversos, Marranos, Crypto-Jews, Anusim (히브리어로 ‘강제 개종자’란 뜻)으로 다양하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Janet Liebman Jacobs, *Hidden Heritage: The Legacy of the Crypto-Jew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156.

로 고발당한 많은 유대인들은 대중이 모인 광장에 끌려 나와 사제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이단 심문회(Auto-da-fé/Auto-de-fé)를 겪어야 했다.<sup>15)</sup> 언젠가 발각되어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뉴멕시코 크립토 주의 종교적 삶은 변하게 되었다. 그들은 비밀스런 방식으로 유대 전통을 이어나갔다. 자녀를 철저히 가톨릭으로 교육시켰으며, 자녀에게 그들이 유대계라는 사실을 거의 알리지 않았다. 대신 가까운 이들과 모여 살면서 족내혼(endogamy)으로 가정을 이루고 유대 전통을 종교가 아니라 가문이나 가족의 전통인 것처럼 전했다.<sup>16)</sup>

뉴멕시코에서 유대교는 19세기 중반까지 이단으로 여겨졌다. 1848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Treaty of Guadalupe Hidalgo)’이 발표되었으나 강한 그리스도교적 성향으로 유대교에 대한 반감은 지속되었다. 1930년 뉴멕시코에 경제 불황이 닥쳤을 때에 그 원인으로 유대인이 지목되기도 하였다. 이후 유럽에서 홀로코스트가 벌어지면서 유대인임을 밝히기 어려운 분위기가 계속되었다.<sup>17)</sup> 뉴멕시코 크립토 주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스페인에서 유대인이 추방된 지 500년을 기념하는 행사와 강연이 열린 1992년이다. 뉴멕시코 크립토 주의 후손들은 자신의 가족과 그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학계와 미디어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자신이 유대인임을 숨기고자 하며, 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봐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다른 나라의 크립토 주와는 구별되는 뉴멕시코 크립토 주의 특징이다. 예를 들어 브라질이나 네덜란드의 크립토 주는 자신의 정

15) 서성철, 「멕시코 유대인 이민과 종교재판: 식민시기 초기 누에바에스파냐를 중심으로」, 『중남미연구』 34(2)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15), 232, 241-242.

16) Sandra Messinger Cypress, “The Inquisition and the Jew in Latino American Drama,” *New Horizons in Sephardic Studies*, eds. Yedidia K. Stillan and Geroge K. Zucker (New York: USA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3), 120-124.

17) Stanly M. Hordes, *To the End of the Earth: A History of the Crypto-Jews of New Mexico*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5), 46-51, 215-217.



체성을 숨기지 않고 주변에 드러내며, ‘크립토 유’를 단지 스페인계 유대인 후손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한다.<sup>18)</sup>

뉴멕시코 크립토 유는 미국으로 이주해 온 다른 유대 집단과도 차이를 보인다. 17세기에 동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아쉬케나지 유대인(Ashkenazic Jew, 동유럽계 유대인)은 종교 박해나 개종 강요를 비교적 덜 겪었으며, 유대인만의 집단 주거지(Shtetl)에서 유대 문화와 종교를 지켜왔다. 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셰파르디 유대인(Shepardic Jew, 스페인계 유대인) 역시 종교 박해를 겪긴 하였으나 뉴멕시코 유대인보다는 종교를 지켜올 수 있었다. 이 두 유대인 집단은 토라(Torah, 모세오경)와 탈무드(Talmud), 다양한 랍비 문헌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대대로 유대 전통을 지켜왔다.<sup>19)</sup> 이와 달리 뉴멕시코 크립토 유는 랍비(Rabbi)나 회당(Synagogue)을 가질 수 없었으며 종교 재판 시기 동안 얼마 되지 않는 유대 문헌마저 잃었다. 또한 직계 가족에서 구전으로 종교 전통이 이어져 오면서 경전이나 교리보다는 종교 관례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관례는 뉴멕시코의 문화와 환경이 반영된 혼합주의적 성격을 가진다.

이처럼 베네 에프라임과 뉴멕시코 크립토 유는 각 나라의 다른 지역 유대 집단에 비해 거주 지역의 역사와 문화, 환경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랍비 문헌과 계율을 중심으로 하는 랍비 유대교(Rabbinic Judaism, 2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유대교의 전형이었던 유대교)가 아닌, 지역 문화가 가미된 독특한 유대 관례와 그들만의 종교적 이야기를 지니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두 집단의 공통적인 특징인 1) 종교 관례와 2)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를 종교에 대한 기어츠의 주요 개념인 모델, 분위기와 동기, 존재의 질서 개념, 사실성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개념들은 서로 상호관계에 놓여 있으며 더 큰 의미의 체계에서 복합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요소들이다. 그러나 본 연구

18) Jacobs, *Hidden Heritage*, 2, 27-30.

19) Hisia R. Diner, *Jews in America*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16-17.

에서는 두 집단의 종교적 특징을 해석하는 데 있어 기어츠 이론이 가지는 효용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에 개념 적용의 범위를 좁혀 기어츠가 『문화의 해석』(*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1973)에서 제시한 예시를 토대로 모델·동기·분위기는 종교 관례로, 존재의 질서 개념과 사실성은 이야기로 살펴보고자 한다.

## 2.2 두 집단의 종교 관례 - 모델·동기·분위기

2006년까지 베네 에프라임은 다른 나라에서 전형적인(normative) 유대 계율을 행하는 이들을 만나 본 적이 없었다. 그 때까지 이들은 집단의 지도자인 야코비 형제가 습득한 최소한의 유대 계율만을 지켜왔다. 이는 유대 식사 계율인 코셰르(Kosher)에 따라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과 안식일(Shabbat, 금요일 해질 녘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일상의 노동을 멈추고 종교 생활을 하는 유대인의 휴일)에 회당에 모이는 것이었다. 이후 유대 명절을 쇠고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시키는 계율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낮은 신분과 경제적 빈곤, 지역적 환경으로 이들이 유대 관례를 온전하게 지키기란 어려웠다. 베네 에프라임 창설 초기에는 회당에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할 물품조차 갖추지 못하였다. 또 이들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 다음날 굶어야 하는 빈곤층으로 안식일에 완전히 쉬기가 어려웠다. 때문에 토요일 낮 회당에서 열리는 1시간 반에서 두 시간짜리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타협을 보았다. 이 예배 역시 많은 이들이 문맹인 까닭에 야코비 형제가 히브리어와 일상어인 텔루구어를 섞어 만든 기도문과 찬송가를 따라 외는 것이 중심이었다. 또한 일반적인 유대 전통에서는 안식일에 요리를 하지 않으므로 전 날 먹을 것을 만들어 둔다. 그러나 날씨가 온화한 안드라프라데시에서 냉장고를 가지지 못한 대다수 베네 에프라임 사람들은 이를 지키기 어려웠다.<sup>20)</sup> 이처럼 베네 에프라임은 안드라프라데시의 환경과 문화가 혼합된 유대 관례를 가지

20) Egorova and Perwez, *The Jews of Andhra Pradesh*, 68-70.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혼합주의적 성격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유대교 역시 베네 에프라임이 지녀온 힌두 전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존의 관념을 변화시켰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소고기를 먹는 식습관과 매장이다.

힌두교에서 소는 신성시되는 동물이다. 따라서 카스트 계급 내의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와 달리 마디가를 비롯한 불가촉천민은 예로부터 소고기를 먹었다. 그러므로 힌두 전통에서 소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천한 신분임을 나타낸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소고기는 먹는 대신 돼지고기를 금한다. 베네 에프라임이 유대교를 받아들이면서 소고기 섭취에 대한 의미가 변화하였다. 불가촉천민이기에 소고기를 먹어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기에 소고기를 먹어 온 것이다. 즉, 소고기를 먹는 식습관이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의 후손임을 나타내는 징표가 된 것이다. 장례 방식 역시 유사한 사례이다. 카스트 계급 내 사람들은 주로 화장(火葬)을 한다. 불가촉천민은 천민의 화장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와 비용 문제로 주로 마을 외곽에 매장을 해 왔다. 카스트 계급과는 다른 장례 방식인 이 매장은 소고기 섭취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유대인의 후손임을 알려주는 상징이 되었다. 이제 베네 에프라임은 비석에 다윗의 별을 그리거나 히브리어를 적어 자신들이 유대인이며, 유대 방식으로 장례를 치렀음을 밝힌다.<sup>21)</sup>

또한 2007년부터 신 유대 집단을 원조하는 해외 유대 기구와 교류를 맺기 시작하면서 베네 에프라임은 보다 일반적인 유대교에 가까워지고자 노력하고 있다. 해외 유대 기구는 이들에게 미크베(Mikveh, 부정한 것을 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회당 안에 설치하는 유대식 욕조), 키파(Kippah, 유대 남성이 쓰는 전통 모자), 토라(Torah) 두루마기와 시두르(Siddur, 히브리어로 된 유대 기도문)를 제공하였고 베네 에프라임을 방문하여 유대 전통과 문화를 가르쳐주기도 하였다. 이제 베네 에프라임은 회당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랍비 교육을 받기 위해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는 등 적극적으로 유대교와 유대 문화를 익히고 있다. 이와

21) Egorova and Perwez, *The Jews of Andhra Pradesh*, 49-51.

더불어 힌두 전통의 천민이 아닌 유대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교육 수준을 높이고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sup>22)</sup>

뉴멕시코 크립토 주는 성문화된 종교적 지침 없이 유대 관례를 행하면서 가톨릭 문화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이들은 밖에서는 가톨릭 신자 행세를 하고 집 안에서만 몰래 유대 관례를 행했다. 때문에 각 가정마다 서로 다른 관례 양상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유대 전통에서는 안식일에 기도(Kiddush)로 축성을 한 빵과 포도주를 먹는다. 일반적으로 포도주를 먼저 마시고 빵을 먹지만, 일부 크립토 주는 빵을 포도주에 적서 먹는다. 또 전통적으로 안식일 밤에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초를 켜는데, 뉴멕시코 크립토 주는 창문 없는 방처럼 은밀한 장소에서 초를 켜는 관례가 있으며 초에 불을 붙일 때에 가톨릭 목주기도를 외기도 한다. 또한 일반적인 유대 가정에서는 문 옆에 메주짜(Mezuzah, 토라 구절이 담긴 금속함)를 설치하는데, 일부 크립토 주 가정에서는 문 옆에 금속 십자가를 두고 이를 메주짜에 상응하는 것으로 본다.

뉴멕시코 크립토 주의 유대 관례에서는 스페인에서 추방되기 이전의 유대 선조와는 다른, 뉴멕시코만의 특징 또한 나타난다. 그 중 하나가 옷이나 물건에 노란색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종교 박해시기에 강제로 노란 옷을 입어야 했던 그들의 역사가 반영된 것이다. 할레 역시 유대인임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표피를 완전히 잘라내는 일반적인 유대 할레 대신 표면에 상처만을 내었다. 또 이웃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금식을 해야 하는 속죄일에 가족끼리 외출하여 고기를 제외한 간단한 음식을 먹기도 했다.<sup>23)</sup> 이처럼 뉴멕시코 크립토 주의 유대 관례는 뉴멕시코의 문화와 환경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유대 관례 역시 뉴멕시코 크립토 주의 가톨릭 관념에 영향을 끼쳤다. 이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가톨릭 성인(聖人)과 성물, 교회에 대한 각 가정 내의 은밀한 해석이다.

22) Egorova and Perwez, *The Jews of Andhra Pradesh*, 59, 71.

23) Seth D. Kunin, "Juggling Identities among the Crypto-Jews of the American Southwest," *Religion* 31, 2001, 52-57.

뉴멕시코 크립토 주는 가톨릭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구약 성서의 인물들을 성인으로 삼고 축성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더 여왕과 모세이다. 뉴멕시코 크립토 주는 이들을 가톨릭 성인처럼 성 에스더(Santa Esterika), 성 모세(Santo Moises)라 부르고, 축일(祝日)을 부여하며 은밀히 숭앙하였다. 또 일부 가정에서는 신에 대한 이미지를 엄격히 금하는 유대 관례를 가톨릭과 연결시켰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가톨릭 성화(聖畵)를 보여주고는 이것이 옳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며 훼손하기도 했다.<sup>24)</sup> 또 정기적으로 아이들과 교회에 나가 이웃에게는 가톨릭 신자로 종교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이들에게는 교회에서 보고 들은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겉으로는 가톨릭을 따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가톨릭을 그릇된 종교의 예로 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중적인 생활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비밀성(secretcy)과 눈속임(deceit)이 뉴멕시코 크립토 주의 특징이라고 본다.<sup>25)</sup>

기어츠는 모델(model)이란 문화 패턴이자 일련의 상징이라 하였다. 이 모델에는 세상의 역동적인 조건에 대응하여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실재에 대한 모델(model of reality)’과 세상에 대한 그림이자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실재를 위한 모델(model for reality)’이 있다. 그리고 두 모델은 “그 자신을 사회적·심리적 실재에 맞게 만드는 동시에 사회적·심리적 실재를 자신들에게 맞게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 실재에 의미를 부여한다.<sup>26)</sup> 베네 에프라임과 뉴멕시코 크립토 주의 유대 관례는 모델에 대한 기어츠의 주장에 부합한다.

베네 에프라임의 유대 관례는 안드라프라데시라는 지역적 환경과 힌두 전통, 불가촉천민 계층이라는 사회문화에 영향을 받아 변화해왔다는 점에서 ‘실재에 대한 모델’이다. 동시에 불가촉천민으로 살아가는 세상

24) Schulamith C. Halevi, “Jewish Practice among Contemporary Anusim,” *Shofar: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Jewish Studies* 18, 1999, 83-84.

25) Jacobs, *Hidden Heritage*, 28-30, 69-70.

26) G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93-95.

에 선택받은 민족과 유대 계율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실재를 위한 모델’이기도 하다. 뉴멕시코 크립토 주의 유대 관례는 뉴멕시코의 가톨릭 문화와 환경에 영향을 받아 변화해왔다는 점에서 ‘실재에 대한 모델’을 보여준다. 또 이 유대 관례는 가톨릭을 ‘피해야 하는 종교’, ‘진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위장도구’로 해석하여 유대 신앙을 강화하고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실재를 위한 모델’을 드러내기도 한다.

두 집단의 종교 관례는 기어즈가 말하는 동기(motivation)와 분위기(mood) 역시 잘 나타낸다. ‘동기’란 특정 행위를 하게하고, 특정 상황에서 특정 감정을 느끼게 하는 지속적인 성향이다. 동기는 성취하려는 목적과 연관하여 의미 있게 된다. ‘분위기’는 어떤 상황에 유발되어 총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분위기는 유발되었다고 생각되는 조건과 관련하여 의미 있게 된다.<sup>27)</sup> 베네 에프라임의 종교 관례에서는 동기가, 뉴멕시코 크립토 주의 종교관례에서는 분위기가 특히 잘 나타난다. 베네 에프라임의 소고기 섭취와 매장은 이들이 천민이 아니라 유대인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유대 관례를 익히고 행하면서 유대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한다. 이들의 유대 관례는 유대인이라는 더 높은 계층, 더 나은 삶을 향한 동기를 잘 보여준다. 뉴멕시코 크립토 주는 종교 재판과 반유대주의라는 특수한 상황을 겪었다. 이들은 유대인임을 들키지 않기 위해 유대 관례를 변형시켰다. 이들의 관례에는 정체성 발각에 대한 두려움과 비밀성이라는 분위기가 잘 나타난다. 그리고 두 집단의 동기와 분위기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며 지속되어 오고 있다.

### 2.3 두 집단의 이야기 - 질서 개념과 사실성

베네 에프라임의 신화는 지도자 슈므엘 야코비가 저술한 『문화해석학』(*The Cultural Hermeneutics*, 2002)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에서 야코비는 유대 역사에 힌두 신화를 접목시켜 해석하면서 유대 집단

27) G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96-97.

과 베네 에프라임을 연결시킨다. 여러 이야기 중 자주 등장하는 것은 베네 에프라임의 선조인 유대 집단과 힌두 사제와의 갈등이다. 먼 옛날, 베네 에프라임이 북인도 지역에 살던 시절에 힌두 사제가 그들을 개종시키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에 힌두 사제가 저주를 내렸고, 그 저주로 유대 집단은 불가촉천민이 되었다. 또 과거 기근이 심했던 시절, 유대인이 아내와 아이들에게 소고기를 먹이는 광경을 힌두 사제가 보고 저주를 내렸다. 이에 유대 선조들이 유대 관습을 잊어버렸으며, 힌두 계급에도 속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베네 에프라임의 곤궁이 유대 관습을 힌두 사제에게 가르쳐 준 데에서 온 별임을 강조한다. 이 이야기에는 힌두 베다(Veda) 전통의 위대한 현인 바시슈타(Vashistha)와 그의 아내 아룬다티(Arundhati)가 등장한다. 바시슈타와 아룬다티는 남인도 힌두 전통에서 널리 숭앙되는 인물들로, 특히 안드라프라데시 지방에서는 결혼식이 열리면 아룬다티가 작은 별로 변해 식장에 나타난다는 믿음이 있다. 야코비는 이 전통을 다르게 해석한다. 아룬다티는 원래 에프라임의 후손, 즉 유대인이었다. 그녀는 유대인들에게 비유대인과 결혼하거나 비유대인에게 유대 관례를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아룬다티와 가까운 유대인 중 하나가 이를 무시하고 현인 바시슈타에게 유대 전통의 지혜를 알려주었다. 이에 아룬다티는 유대 집단에 저주를 내렸다. 그 결과 유대 집단은 힌두 계급의 땅주인에게 자신들을 팔아가며 가난하게 살아가게 되었다.<sup>28)</sup> 이 이야기에서 불가촉천민이라는 베네 에프라임의 사회적 지위는 유대민족으로서 지켜야 할 계율을 어긴 데에서 비롯된 벌이다. 그러므로 불가촉천민에서 벗어나 유대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전에는 지키지 못한 유대 계율과 관례를 준수해야 한다. 이처럼 베네 에프라임의 신화에는 힌두 전통이 반영된 지역적 특수성과 유대 관례 엄수에 대한 동기, 세상에 대한 관점과 고통을 이해하는 방식이 잘 나타나 있다.

뉴멕시코 크립토 주의 종교적 이야기는 대개 가족 사이에서 구전된

28) Egorova, *Jews and India*, 122-123.

것이 많다. 그 중 자넷 제이콥스(Janet Jacobs)가 인터뷰한 한 제보자의 이야기는 가족의 이야기가 뉴멕시코 크립토 주의 비극적 역사에 대한 기록인 동시에 종교적 상징을 나타내는 전설임을 잘 보여준다.

*가족 중에 할머니만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정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자주 들려주셨지요. “어떤 왕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했단다. 그 중에 일곱 아이를 가진 어머니가 있었지. 왕은 어머니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면 아이를 모두 죽이겠다고 했어.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지. 그러곤 ‘나나 아이들을 죽이는 건 상관없어요. 우주의 왕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셨으나 또한 생명도 주셨거든요.’ 라고 말했어. 그녀의 말이 끝나자, 사람들이 큰 애의 목을 그었어. 그 다음 아이도 굶고, 그렇게 그녀의 모든 아이를 죽였지. 하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

제이콥스는 이 이야기가 뉴멕시코 크립토 주의 겪어야 했던 박해와 종교 체관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본다. 나아가 「마카베오 하」에 나오는 한나(Hannah)와 그녀의 일곱 아들 이야기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한다. 안티오쿠스(Antiochus) 왕은 유대 여성 한나에게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면 아들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그러나 한나는 왕의 명을 거절한다. 이에 한나의 첫째 아들이 죽임을 당한다. 둘째 아들은 죽기 전, 안티오쿠스 왕에게 ‘당신이 우리를 죽일지언정 우주의 왕은 우리를 불멸의 삶으로 이끌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법을 위해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여섯 아들이 차례로 죽은 뒤, 한나는 남은 막내아들에게 ‘신의 은총 안에 있는 죽음을 받아들이라’며 위로한다. 제이콥스는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교 중심적인 뉴멕시코 환경에서 유대적 특성을 감추기 위해 이야기를 각색해야 했던 뉴멕시코 크립토 주의 처지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또한 그들이 여러 유대 관례 중에서도 돼지고기 금기를 특히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한다.<sup>29)</sup> 또 이 이야기에는 돼지고기 금기가 유대 민족과 신 사이의 약속이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29) Jacobs, *Hidden Heritage*, 35-36.



라면 육체적 죽음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제가 담겨 있다. 이처럼 크립토 유 가정 내의 이야기는 종교적 교훈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자 유대 민족과 크립토 주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다. 나아가 이 이야기는 뉴멕시코 크립토 유가 세상을 이해하고 고통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보여준다.

기어츠는 종교가 상징을 통해 세계 질서의 이미지를 형성하며, 이 이미지가 삶의 다양한 경험을 수용하고 인내할 수 있게 한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종교가 인간에게 닥친 고통을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든다고 주장했다.<sup>30)</sup> 베네 에프라임과 뉴멕시코 크립토주의 이야기 역시 기어츠가 지적한 대로 세계에 대한 의미를 제공하면서 그 의미에 사실성을 부여하여 사람들이 삶을 수용하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베네 에프라임의 신화는 이들이 왜 마디가라는 천민으로 태어나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힌두교 베다 전통에 의하면 이들은 비천하게 태어나야 하는 운명이기 때문에 천민이 된 것이다. 그러나 베네 에프라임 신화에서 이들은 원래 유대인이었으나 계율을 지키지 않은 벌로 잠시 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천민으로서의 삶은 벌을 받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계율을 지켜나가면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신화는 베네 에프라임의 집단 정체성과 문화를 형성하면서 사람들의 삶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계율 엄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종교적 삶을 강화한다.

뉴멕시코 크립토 주의 이야기는 종교 박해를 겪은 유대인에게 세계관과 삶의 의미를 제공한다. 이 이야기에서 신은 우주의 왕으로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며 영원한 삶을 보장한다. 따라서 신과 맺은 계율을 지키는 것이 현실에서의 죽음보다 더 중요하다. 뉴멕시코 크립토 유 가족 전승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 죽임을 당한 이들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그것은 이 이야기가 유대인으로서의 삶에 의미를 제공하고 사실성을 부여하며 고통스런 삶을 견딜만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기어츠는 『이슬람의 관찰』(*Islam Observed*, 1968)에서 두 지역, 발

30) G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98-105.

리(Bali)와 모로코(Morocco)의 이슬람을 분석하였다. 그는 지역적 특수성에 입각하여 발리와 모로코의 이슬람 문화와 세계관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따라서 두 지역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있어 온 범문화적·범지역적인 이슬람과 두 지역의 특수한 이슬람과의 관계는 자세히 설명되지 않는다.<sup>31)</sup> 그러나 지역적 특수성과 범지역적 보편성은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특히 지역적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특수성과 보편성이 가지는 상호관계에 대한 고찰이 종교를 이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메흐디 아미네(Mehdi P. Amineh)는 의미의 문화적 산물이 언제나 지역적이라고 본 기어츠의 주장은 타당하나, 지구화 혹은 세계화(universalization) 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지역적 특수성이 더 큰 범주에서 일반적인 전형(norm)이나 가치(value)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32)</sup> 특수성과 보편성 간의 상호작용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베네 에프라임과 뉴멕시코 크립토 주의 유대교 역시 더 큰 범주의 현대 유대교와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에 두 집단의 지역적 특수성에서 나오는 종교적 특징과 현대 유대교

31) 이는 『이슬람의 관찰』 1-2장에 잘 나타난다. 1장은 발리와 모로코의 역사, 문화, 환경 등을 설명하고 이 지역에 언제 이슬람이 들어와 어떻게 수용되고 발전되었는지 설명한다. 2장에서는 두 지역이 하느님과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진리를 깨우칠 수 있다는 믿음을 지녔다는 점에서 신비적(mystical)이라는 특징이 있으나 그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보면서 두 지역 이슬람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분석한다. 일반적인 이슬람의 특징보다는 두 지역 이슬람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lifford Geertz, *Islam Observed: Religious Development in Morocco and Indonesia* (Chicago: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5-13, 23-24, 35-36. 펠즈 역시 기어츠가 지역 문화의 특수성과 지역 안에서의 종교의 의미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알라(Allah)에 대한 믿음, 다섯 기둥(이슬람의 기본적인 다섯 가지 의무: 신앙 고백, 기도, 단식, 자선, 메카 순례), 심판 교리 등과 같은 범문화적·범지역적 이슬람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Pals, *Nine Theories of Religion*, 314-315, 320.

32) Mehdi P. Amineh, "Democracy in the Muslim middle west: Beyond Cultural Essentialism," *World Religions and Multiculturalism: A dialectic Relation*, eds. Eliezer Ben-Rafael and Yitzhak Sternberg (Leiden: Brill, 2010), 172.

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두 집단과 현대 유대교와의 관계

베네 에프라임과 현대 유대교의 관계는 유대교 정책을 둘러싼 문제에서 살펴볼 수 있다. 베네 에프라임은 유대인의 후손임을 공표한 이래 이스라엘로의 귀환(repatriate)을 원했다. 이때의 귀환은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시민권이 부여되는 알리야(Aliyah)를 뜻한다. 이러한 귀환의 대상이 되려면 이스라엘 의회 크네세트(Kneset)에서 규정한 귀환법(law of return)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970년에 개정된 현대 이스라엘 귀환법에 따르면 ‘유대인의 혈통이 증명되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만이 귀환 자격을 얻는다.<sup>33)</sup> 그런데 이스라엘은 국교로 정통 유대교(Orthodox Judaism)<sup>34)</sup>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귀환법 상의 ‘유대인’과 ‘유대교’는 정통 유대교의 법률 해석(Halakha)에 의거한다.

정통 유대교에서 유대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어야만 한다.<sup>35)</sup> 그러나 베네 에프라임은 유대인 후손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귀환법 상 태생적인 유대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유대교로 개종

33) Sarah Karesh and Mitchell M. Hurvitz, *Encyclopedia of Judaism* (New York: Facts on File, 2006), 287.

34) 현대 유대교는 크게 개혁 유대교(Reform Judaism), 정통 유대교(Orthodox Judaism), 보수주의 유대교(Conservative Judaism)로 나뉜다. 개혁 유대교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분리된 유대인의 지위를 거부하고 유대교의 율법과 신학 등을 현 시대에 맞춰 수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통 유대교는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세계관을 중요시하며 토라(Torah)의 신성한 권위를 믿고 율법을 준수하며 유대 복식을 고수한다. 보수주의 유대교는 개혁 유대교와 정통 유대교 사이에서 생활양식에 관한 규율을 따르면서 토라에 대한 학문적 탐구를 수용하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한다. Jacob Neusner, *Judaism: The basics* (New York: London: Routledge, 2006), 151-161.

35) 제이콥 뉴스너, 『유대교』, 『우리 인간의 종교들』, 주원준 옮김 (서울: 소나무, 2013), 523-524.

을 하여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베네 에프라임의 종교적 특징이 문제가 된다. 유대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그 전에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나 선택에 의해 유대인(Jew by Choice,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나 유대교로 개종한 이를 일컫는 유대 표현)이 되었음을 가리킨다. 그런데 베네 에프라임에게 있어 태생적으로 유대인(Jew by Nature)이라는 사실은 집단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믿음이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에브라임의 후손으로, 랍비식 정통 유대교의 법률이 생겨나기 전에 인도로 이주하였으므로 정통 유대교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베네 에프라임은 과거에 개종을 거부하였고 현재에도 거부하고 있다.<sup>36)</sup>

베네 에프라임과 개종과 관련된 문제는 더 있다. 귀환법 상의 ‘유대교’가 정통 유대교만을 의미하므로 정통 유대교인으로 개종해야만 유대인의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개혁 유대교(Reform Judaism), 보수주의 유대교(Conservative Judaism) 등 정통 유대교가 아닌 다른 유대교 분파로 개종하면 이스라엘에서 귀환법 상의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정통 유대교는 여러 유대교 분파 중에서 가장 엄격한 계율 준수를 요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사회적 제약에 부딪쳐 안식일조차 완벽히 지키지 못하는 베네 에프라임에게 정통 유대교로의 개종은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에 베네 에프라임은 안드라프라데시에서 정통 유대교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자 노력하면서 이스라엘의 랍비를 비롯한 유대 집단의 관심과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영향력 있는 이스라엘 랍비가 베네 에프라임이 유대 후손임을 인정한다면 이들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 또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베타 이스라엘(Beta Israel), 혹은 팔라샤(Falasha)라 알려진 에티오피아 유대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부족 10지파 중 단(Dan) 지파라 주장하며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귀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귀환법에서 요구하는 출생증명서가 없어 이스라엘과 서구 유대사회에서 진

36) Egorova and Perwez, *The Jews of Andhra Pradesh*, 66.

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1973년, 이스라엘의 한 랍비가 이들이 단 지파의 후손이라고 공표하고, 다시 1975년, 또 다른 랍비가 여기에 동의하면서 이스라엘 정부는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귀환법에 따라 시민권을 인정받는 알리야(Aliyah)의 대상이 된다는 민법 조항을 덧 붙였다. 1991년, 에티오피아 내전 당시에 반군의 학살 앞에 놓인 2만 명의 에티오피아 유대인을 항공기로 운송한 이스라엘 정부의 솔로몬 작전은 이러한 개정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sup>37)</sup>

베네 에프라임은 에티오피아 유대인처럼 이스라엘의 랍비에게 공인을 받고 정통 유대교의 지지를 얻어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 정부는 베네 에프라임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소수의 랍비들이 이들과 교류하고 있으나 랍비의 공표는 아직 없다. 다만 쿨라누(Kulanu), 샤베이 이스라엘(Shavei Israel)과 같은 여러 유대 비영리 기구가 이들에게 경제적·문화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2001년 샤베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정부에 로비를 하여 소규모 인도 유대 집단 베네 메나세(Bene Menashe)의 알리야를 성사시킨 전력이 있어 앞으로 베네 에프라임에 대한 이스라엘 정책 역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베네 에프라임과 같은 신 유대 집단을 어떻게 해석하고 수용할 것인지 이스라엘 정부와 유대교에서도 점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sup>38)</sup>

크립토 주와 현대 유대교와의 관계는 유대교의 신앙을 둘러싼 문제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크립토 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뉴멕시코와 같은 미국 크립토 주가 정의하기 가장 어려운 집단이라고 지적한다. 다수의 크립토 주가 유대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지역과 시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종교적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다.<sup>39)</sup> 특히

37) Stephen Specter, *Operation Solomon: The Daring Rescue of the Ethiopian Jews*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3, 10, 17.

38) Egorova and Perwez, *The Jews of Andhra Pradesh*, 122.

39) Nathan Wachtel, *The Faith of Remembrance: Marrano labyrinths*, trans. Nikki Halper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3),

뉴멕시코 크립토 주의 경우, 이들에 대한 어떤 것도 단정지어 말하기 어려우며 연구 대상인 크립토 주와 이들을 연구하는 이들 양측 모두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어 연구하기에 가장 어려운 사례라고 지적한다.<sup>40)</sup> 이는 유대인임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가족 혹은 개인으로 신앙을 유지해 온 뉴멕시코 크립토 주의 종교적 특징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특징은 현재에도 이어져 뉴멕시코 크립토 주에게서는 일반적인 유대 문화와는 다른 신앙 형태가 발견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주 작은 집단이나 개인 단위로 독특하게 습합된 신앙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는 유대식 회당이 아닌 교회를 짓고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혼합된 예배를 갖는 사례도 있다. 유대 관례를 따르면서 예수가 보편 종교인 그리스도교의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 민족의 메시아라 믿는 경우도 있다. 또한 성모 마리아를 유대인 예수를 낳은 유대인 어머니로서 숭상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신앙 혼합(faith blending) 경향을 보인다.<sup>41)</sup> 따라서 이들 신앙을 유대교의 한 형태로 볼 것인지, 이들을 유대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

또한 뉴멕시코 크립토 주는 15세기부터 그리스도교에 깊은 영향을 받아왔으며 20세기 초(1912년) 미국의 주(州)로 편입되면서 미국 세속 문화에도 동화되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해방(Emancipation, 18세기 말부터 유럽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던 나라의 시민권을 인정받게 된 것)과 이스라엘 건국을 경험한 현대의 다른 유대 공동체가 앞으로 겪게 될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유대교에서 전통적으로 신을 히브리어로 하셈(Ha Shem, ‘그 이름’이란 뜻) 등으로 부른다. 반면, 히브리어를 모르는 일부 크립토 주는 그리스도교의 영향으로 신을 구세주(El Salvador, the Savior) 등으로 부른다. 따라서 히브리어

---

248, 269.

40) Renée Levine Melammed, *A Question of Identity: Iberian Conversos in Historical Perspective*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172.

41) Jacobs, *Hidden Heritage*, 84-85, 90-91.

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역시 유대교를 이해하는 데에 무의식적인 습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에 크립토 유가 유대교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유대적이지 않은 요소를 찾아내어 수정해나 가면서 유대 고유의 신학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sup>42)</sup>

크립토 유와 관련된 현대 유대교의 또 다른 사안은 유전학 연구 분야이다. 1990년대부터 Society for Crypto-Judaic Studies를 비롯한 크립토 유를 연구하는 몇몇 기관이 생겨 이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뉴멕시코 크립토 유에게서 유대계 추정 유전 형질이 나왔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심상성천포창(pemphigus vulgaris)은 피부가 감염에 취약하거나 물집이 쉽게 잡히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다. 유대계 여성에게는 이 심상성천포창의 유전자가 있는데, 현대 뉴멕시코 크립토 유 후손에게서도 이 유전자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유전 연구는 뉴멕시코 크립토 유와 같이 자신의 계보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계보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신 유대 집단에 대한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up>43)</sup>

42) Byron L. Sherwin, *Faith Finding Meaning: A Theology of Judaism*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6-7.

43) Hordes, *To the End of the Earth*, 289-293. 한편, 민속학자 주디스 놀랜더(Judith Neulander)는 뉴멕시코 크립토 유에 대한 유전학 연구가 이들이 중동계 선조의 후손임을 나타낼 뿐, 유대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놀랜더는 또한 뉴멕시코 크립토 유에 대한 역사적 기록물이 빈약하므로 뉴멕시코 크립토 유 후손의 증언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20세기에 크립토 유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뉴멕시코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재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Judith Neulander, "Inventing Jewish History, Culture, and Genetic Identity in Modern New Mexico," *Who is a Jew?: Reflections on History, Religion, and Culture*, ed. Leonard J. Greenspoon (Ashland: Purdue University Press, 2015), 69-101. 놀랜더의 연구에 대해 호데스(Hordes)는 그녀가 뉴멕시코 크립토 유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한 부분만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현대 뉴멕시코 크립토 유의 존재를 축소시켰다고 본다. 예를 들어 그들의 역사적 상황과 종교 관례보다는 이야기나 문화에만 주목하였고, 유대교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교 편향적인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Hordes, *To the End of the Earth*, 246-261. 크립토 유에 대한 두 학자의 입장은 특정 유대 집단과 이들 자료에 대한 학자의 관점에 따라 해

이와 같이 두 유대 집단의 종교적 특징은 현대 유대교를 둘러싼 다양한 담론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는 유대교가 한 나라의 국교이자 한 민족의 종교이며, 역사적 흐름에 따라 새로운 면이 추가되는 다양한 양상을 지닌 종교 전통이라는 점과도 관계가 있다.<sup>44)</sup> 유대교를 연구하는 학자들 역시 시대에 따라 변화해가는 유대교의 유연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유대교 학자인 제이콥 뉴스너(Jacob Neusner)는 현대적 경험의 결과로 유대 전통(신앙, 의례, 토라, 랍비 전통)과 유대 문화(전 세계 유대인의 다양한 양식과 관습)가 해체되었으므로 현대 유대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둘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sup>45)</sup> 마이클 새틀로우(Michael Satlow) 역시 본질적으로 유대교를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는 과거와 현재의 유대적인 삶의 다양성을 설명하거나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각 유대 공동체가 그들만의 구체적인 세계관으로 전통을 읽고 이해하면서 새로운 유대교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므로 유대교를 알기 위해서는 각 공동체의 다양성과 유대교의 통합적인 특징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sup>46)</sup> 따라서 베네 에프라임과 뉴멕시코 크립토 주에 대한 연구가 현대 유대교에 대한 연구가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안드라프라데시의 베네 에프라임과 뉴멕시코 크립토 주는 처음 인류학, 민속학의 영역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근래까지 일부 학자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적인(marginal) 연구 대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신 유대 집단에 대한 연구 결과가 축적됨에 따라 종교학에서의 연구 또한

---

석 또한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신 유대 집단 연구에 대한 어려움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44)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W.C. Smith)는 이처럼 역사적 발전 과정 속에서 새로운 면이 추가되면서 적극적인 평가를 받는 유대교를 크레센도(crescendo) 형태의 종교 전통이라고 보았다.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 『종교의 의미와 목적』, 김희성 옮김 (서울: 분도출판사, 1991), 203.

45) Jacob Neusner, *The Way of Torah: An Introduction to Judaism* (North Scituate, mass.: Duxbury Press, 1979), 123.

46) Michael Satlow, *Creating Judaism: History, Tradition, Pract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6), 6-7.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네 에프라임의 경우, 이들에 앞서 인도에서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주장한 베네 이스라엘(Bene Israel)과 바그다디 유대인(Baghdadi Jews)이 점차 학계의 관심을 얻으며 고고학, 정치학, 유전학, 인류학, 종교학 등의 연구 대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 대상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다.<sup>47)</sup> 특히 인도의 일부 신 유대 집단들이 사회적으로 하위 계층에 속하며 공동체와 사회의 변혁을 주장한다는 점, 이스라엘 이주 문제를 두고 인도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 등에서 종교사회학에서의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멕시코 크립토 주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대 신학과 유대 사회의 세속화를 검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또 종교 박해라는 정신적 외상(trauma)을 겪으면서 유대인 선조와 유대 문화, 유대교를 거부하거나 숨기게 되었다는 점에서 종교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연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sup>48)</sup>

#### 4. 결론

신 유대 집단은 전통적인 유대교나 유대 문화보다는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주의 유대 집단인 베네 에프라임과 미국 뉴멕시코 주의 유대 집단인 크립토 주를 선정하고, 이 신 유대 집단은

---

47) Shalva Weil, "On Origins, the Arts, and Transformed Identities: Foci of Research into the Bene Israel," *Indo-Judaic Studies in the Twenty-First Century: A View from the Margin*, eds. Nathan Katz, Ranabir Chakravarti, Braj M. Sinha, and Shalva Weil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7), 154-155; Joan Roland, "The Baghdadi Jews of India: Perspectives on the Study and Portrayal of a Community," *Indo-Judaic Studies in the Twenty-First Century: A View from the Margin*, eds. Nathan Katz, Ranabir Chakravarti, Braj M. Sinha, and Shalva Weil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7), 164-170.

48) Jacobs, *Hidden Heritage*, 146-147, 150-153.

기어츠의 이론으로 살펴볼 때에 그 종교적 특징이 더욱 잘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또 지역적 특수성을 강조한 기어츠 이론에서 나아가 신 유대 집단이 범지역적 유대교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현대 유대교 및 유대 문화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학문적인 유대교 연구의 대상으로도 발전될 수 있음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안드라프라데시의 불가촉천민인 베네 에프라임은 인도의 다른 유대 집단보다도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며,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들의 유대교는 힌두 전통과 안드라프라데시의 문화 및 환경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지역적인 특수성을 드러낸다. 베네 에프라임의 유대 관례는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생활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실재에 대한 모델’로서의 종교를 보여준다. 동시에 소고기 섭취와 매장 문화를 유대 식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실재를 위한 모델’로서의 종교를 보여준다. 이러한 관례는 이들에게 선택받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하여 집단에 동기를 부여한다. 베네 에프라임의 신화는 이들의 존재 및 사회적 지위에 대한 설명과 세상에 대한 관점, 고통스런 삶을 수용하는 방식을 제공한다. 베네 에프라임의 종교적 특징은 귀환법이라는 현대 유대교의 정책적인 측면과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 인도 사회의 하층민으로 이스라엘로의 귀환을 원하는 베네 에프라임은 계급투쟁, 국적 변경 등을 중심으로 종교인류학과 종교사회학에서 연구 대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16세기부터 종교 재판과 반유대주의를 겪은 뉴멕시코 크립토 주는 겉으로는 그리스도교인으로 살면서 은밀하게 유대 관례를 실천해왔다는 점에서 미국 내 다른 유대 집단과는 다른 지역적 특수성을 보인다. 이들의 유대 관례는 가톨릭과 뉴멕시코의 문화 및 환경에 영향을 받아 변형되었다는 점에서 ‘실재에 대한 모델’을 보여준다. 동시에 유대 관점으로 가톨릭을 해석하여 유대 신앙을 유지·강화해왔다는 점에서 ‘실재를 위한 모델’을 보여준다. 이들은 오랜 박해를 겪으면서 유대 정체성을 숨기려 하는 특수한 분위기를 가지게 되었다. 이는 이들의 종교적 이야

기가 직계가족 사이에서 구전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 이야기는 뉴멕시코 크립토 주의 고통스런 과거와 유대 민족의 역사적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유대 관례 준수의 중요성을 강화한다. 또한 유대적인 세계관과 유대인으로서 고통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뉴멕시코 크립토 주의 종교적 특징은 현대 유대교의 신학 및 유전학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세속화, 종교 습합, 종교적 정체성 등을 중심으로 향후 종교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유대 집단의 등장과 이 집단이 현대 유대교 및 유대 사회와 맺는 관계, 향후 종교학에서의 연구 가능성을 살피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문화인류학자 기어츠의 종교 이론에 따라 두 집단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종교학적 고찰로는 나아가지 못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신 유대 집단에 대한 연구 자료가 축적되고 있으므로 미진한 점은 후속 연구에서 보완하고자 한다.

주제어: 신 유대 집단, 근 유대 집단, 유대화 운동 공동체, 클리퍼드 기어츠, 뉴멕시코 크립토 주, 베네 에프라임, 불가촉천민, 유대교, 유대인, 종교적 정체성.

원고접수일: 2016년 5월 11일

심사완료일: 2016년 6월 7일

게재확정일: 2016년 6월 14일

## 참고문헌

- 박정석. 『카스트를 넘어서』. 서울: 민속원, 2007.
- 서성철. 「멕시코 유대인 이민과 종교재판: 식민시기 초기 누에바에스파냐를 중심으로」. 『중남미연구』 34(2).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15.
- 뉴스너, 제이콥. 「유다교」. 『우리 인간의 종교들』. 주원준 옮김. 서울: 소나무, 2013.
- 스미스, 윌프레드 캔트웰. 『종교의 의미와 목적』. 길희성 옮김. 서울: 분도출판사, 1991.
- Amineh, Mehdi P. “Democracy in the Muslim middle west: Beyond Cultural Essentialism.” *World Religions and Multiculturalism: A Dialectic Relation*. eds. Eliezer Ben-Rafael and Yitzhak Sternberg. Leiden: Brill, 2010.
- Buchdal, David. “Religion and Culture: Judaism as a Cultural System.” *Take Judaism, For Example: Studies Toward the Comparison of Religions*. ed. Jacob Nesuner. Atlanta, Ga.: Scholars Press, 1992.
- Cypress, Sandra Messinger. “The Inquisition and the Jew in Latino American Drama.” *New Horizons in Sephardic Studies*. eds. Yedidia K. Stillan and Geroge K. Zucker. New York:USA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3.
- Diner, Hisia R. *Jews in America*.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Egorova, Yulia. *Jews and India: Perceptions and image*. New York: Routledge, 2006.

- . "The Children of Ephraim: Being Jewish in Andhra Pradesh." *Anthropology Today* 26, 2010.
- . and Shahid Perwez. "Old Memories, New Histories: (Re)discovering the Past of Jewish Dalits." *History and Anthropology* 23, 2012.
- . and Shahid Perwez. *The Jews of Andhra Pradesh: Contesting caste and religion in South Indi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Gartner, Lloyd P. *History of the Jews in modern times*.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Geertz, Clifford. *Islam Observed: Religious Development in Morocco and Indonesia*. Chicago;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 .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Selected essays*. New York: Basic, 1973.
- . *Local Knowledge: Further essays in interpretive anthropology*. New York: Basic, 1983.
- Halevi, Schulamith C. "Jewish Practice among Contemporary Anusim." *Shofar: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Jewish Studies* 18, 1999.
- Hordes, Stanley M. *To the End of the Earth: A History of the Crypto-Jews of New Mexico*.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5.
- Jacobs, Janet Liebman. *Hidden Heritage: The Legacy of the Crypto-Jew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 Karesh, Sara E. and Mitchell M. Hurvitz. *Encyclopedia of Judaism*. New York: Facts on File, 2006.
- Kunin, Seth D. "Juggling Identities among the Crypto-Jews of the

- American Southwest.” *Religion* 31, 2001.
- Melammed, Renée Levine. *A Question of Identity: Iberian Conversos in Historical Perspective*.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Neulander, Judith. “Inventing Jewish History, Culture, and Genetic Identity in Modern New Mexico.” *Who is a Jew?: Reflections on History, Religion, and Culture*. ed. Leonard J. Greenspoon. Ashland: Purdue University Press, 2015.
- Neusner, Jacob. *The Way of Torah: An Introduction to Judaism*. North Scituate, mass.: Duxbury Press, 1979.
- . *Judaism: The basics*. New York; London: Routledge, 2006.
- Pals, Daniel L. *Nine Theories of Religion*.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 Parfitt, Tudor. “Tribal Jews.” *Indo-Judaic Studies in the Twenty-First Century: A View from the Margin*. eds. Nathan Katz, Ranabir Chakravarti, Braj M. Sinha, and Shalva Weil.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7.
- Roland, Joan. “The Baghdadi Jews of India: Perspectives on the Study and Portrayal of a Community.” *Indo-Judaic Studies in the Twenty-First Century: A View from the Margin*. eds. Nathan Katz, Ranabir Chakravarti, Braj M. Sinha, and Shalva Weil.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7.
- Satlow, Michael. *Creating Judaism: History, Tradition, Pract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6.
- Sherwin, Byron L. *Faith finding Meaning: A Theology of Judaism*.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Specter, Stephen. *Operation Solomon: The Daring Rescue of the Ethiopian Jews*.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Wachtel, Nathan. *The Faith of Remembrance: Marrano labyrinths.* trans. Nikki Halper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3.

Weil, Shalva. "On Origins, the Arts, and Transformed Identities: Foci of Research into the Bene Israel." *Indo-Judaic Studies in the Twenty-First Century: A View from the Margin.* eds. Nathan Katz, Ranabir Chakravarti, Braj M. Sinha, and Shalva Weil.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7.

Abstract

## A Religious Study on ‘New Jewish Groups’ as a Cultural System : The Cases of Andhra Pradesh and New Mexico

Kang, Ji-eon(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state of Israel was established in 1948, the statuses of Jews and Judaism has changed in affirmative ways. In this climate, some people from various countries, including America, Russia, India, Sudan, Myanmar, etc., came on the scene of Judaism and Jewish culture, claiming they were actually Jews. They are called ‘New Jewish Groups’, ‘Near-Jewish Groups’, or ‘Judaising/Judaizing Movement Communities’ in the academic field. The researches on them are still in the early stages and they are usually considered as marginal subjects in Jewish studies. These New Jewish Groups have a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other diaspora Jewish groups, in that they had been severed the connection to normative Judaism and Jewish culture. They claimed that they had lost/hidden their identity as Jews at a certain point in the history and had to have conformed to local condition, but now they could regain/disclose their true nature. That is, New Jewish Groups were considerably influenced by



local culture and environment. So it could be useful to examine their religiosity in the light of the theory of a cultural anthropologist, Clifford Geertz, who interpreted religion as a cultural system.

The cases of local Jewish groups in Andhra Pradesh and New Mexico could show the utility of Geertz's perspective on the interpretation of religiosity and culture on New Jewish Groups. 'Bene Ephraim' in Andhra Pradesh is a small Indian Jewish people who believe that they are the children of Ephraim. Their social and economic status as the untouchable, is the key element that made their Judaism particular. They have formed a distinctive culture by reinterpreting their former customs and thoughts as a Hindu traditional class in Jewish ways.

'New Mexico Crypto-Jews' are the descendants of Jews in the Iberian peninsula. From 16th century to 19th century, Judaism was condemned as a heresy and Jewish descendants were forced to convert to a Catholic in New Mexico. Among these new converts, there were people who covertly followed 'Law of Moses'. To avoid accusation of the inquisition, they practiced their Judaism secretly and passed on it as a family tradition. In this process, their Judaism got particular features differentiated from other Jewish groups in America. These religious aspects 'Bene Ephraim' and 'New Mexico Crypto-Jews' can be interpreted by the concepts of 'model', 'motivation', 'mood', 'order of existence', and 'factuality' in Geertz's theory. Furthermore, they now interact with the broader category, Modern Judaism/Jewish culture and facilitate the Jewish studies on various fields, including anthropology, sociology, genetics, and religious studies.

This paper tries to introduce the newly emergence of local Jewish groups, examining their religious characters by Geertz's theory based on his definition of religion as a cultural system. And leading on from Geertz's stress on local knowledge and particularity, this paper also tries to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local Jewish groups and Modern Judaism/Jewish culture, and the possibility of further academic studies.

Key Words : New Jewish Group, Near-Jewish Group, Judaizing/Judaizing Movement Community, Clifford Geertz, Bene Ephraim, The Untouchable, Crypto-Jew, Judaism, Jews, religious identity.